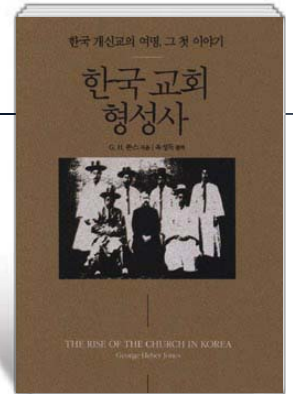


한국 교회 형성사

이상규 (고신대 교수 역사신학)



G. H. 존스 저 | 옥성득 번역 | 형성사

『한국 교회 형성사』로 번역된 이 책을 접하고 우선 반가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이름 조원시(趙元時)로 널리 알려진 George Heber Jones(1867-1919) 선교사는 1888년 5월 내한하여 1909년 귀국하기까지 21년간 한국에서 일한 선교사인데, 그가 *The Rise of the Church in Korea*라는 책을 썼다는 점은 기록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이 책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역사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책 원고는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유니언신학교의 버크도서관 고문서실에 잠자고 있었다. 약 한 세기가 지난 후 편역자의 헌신적인 수고의 값으로 이 책 원고가 발굴되고 편집, 번역되어 오늘의 독자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책이 거듭나게(重生)된 것은 편역자의 희생 때문이다.

비록 험겨운 작업이지만 역사가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희미하게 보이던 역사의 숲을 헤쳐가는 일은 연구자들에게는 신나는 일이다. 이런 책을 접할 때마다 19세기 독일의 로마사학자였던 니브르(Barthold Georg Niebuhr, 1776-1831)의 격사(激詞)가 생각난다. “역사가의 사명은 어두운 광맥을 파헤쳐가며 금광을 찾는 고투이다.” 이 사명에 충실하려는 편역자의 덕분으로 아무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한채 고문서관에서 잠자고 있던 새로운 문헌이 아담한 책으로 제작되어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 이 어찌 반갑지 아니한가! 자칫 이 문헌이 이국의 하늘 아래

사장되거나 영원히 소실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책의 발굴과 출판은 한국교회를 위한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전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구성은 한국 혹은 한국교회에 대해 글을 남겼던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고 있다. 한국선교의 시작, 한국과 한국의 언어 역사 지리 종교 환경을 소개하는 점에서 그렇다.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나라로 인식되어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연원을 소개하기 전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소개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접근이었다. 한국, 한국교회에 대해 글을 썼던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 이런 방식을 추구했다. 존스도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으나 존스의 기술은 다른이의 저술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 그가 그린 한국 혹은 한국사회상, 곧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분석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제종교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다. 존스의

이 책은 1917년에 완성한 원고인데, 이 책이 출판되기 이전에 나왔던 다니엘 기포의(Daniel Gifford)나 언더우드, 게이일의 각종 문헌, 그리고 그 시기 주한 선교사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던 그리피스(W. E. Griffis)의 ‘은자의 나라 조선’이나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 여사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혹은 조지 길모어(George Gilmore)의 ‘서울에서 본 조선’(*Korea from its Capital*) 등을 알고 있었고 이런 책을 참고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 선교지인 한국의 문화적 정황에 대한 기술은 1897년의 기포드의 ‘조선의 풍속과 선교’(*Everyday Life in Korea; a Collection of Studies and Stories*)나, 1908년에 출판된 언더우드의 ‘한국의 부름’(*The Call of Korea*) 만큼 장황하지 않지만 함축적이고, 스탠리 솔타우(Stanley Soltau)의 ‘은둔의 나라 한국과 기독교에 대한 반응’(*Korea, The Hermit Nation and Its Response to Christianity*)보다는 훨씬 분석적이다. 그는 단지 사실(fact)이나 정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의 국토가 산악지대라는 특성이 주민의 성격이나 행동양식을 결정했고, 산지의 협곡이나 계곡은 씨족공동체 정신에 지역성을 심어주었고, 이런 점이 씨족 간의 격리, 낯선 사람에 대한 비우호적인 냉담한 성격을 조성했다고 지적한다.

또 종교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전파 이전의 유교 불교 무교의 3대 종교가 종교적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며 어느 한 종교가 배타적으로 한국인의 종교가 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이 3대 종교는 중첩되어 상호 침투되어 한국인의 일종의 종교적 혼합체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은 이국인의 눈으로 평가한 올바른 인식이었다. 일반적으로 게이일을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의 주도적인 종교는 시대를 따라 바뀌었다고 보고 이것이 한국문화사의 특이성이라고 말해 왔다. 5세기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에는 중국의 고전적 종교인 유교, 불교, 도교 등이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지배적인 종교였고, 조선시대에는 송유배불(崇儒排佛)정책으로 유교가 그 시대문화를 지배하며 조선왕조의 쇄망과 함께 유교의 영향력도 쇠퇴하였다는 점을 말하며 존스는 3종교의 상호 의존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62-63쪽, 그 이후). 그의 이런 지적, 곧 “이론적으로 한국인은 이 세 가지 종교의 분리된 특성을 인식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절망적으로 혼합되고 혼돈스러운 교리와 신앙의 덩어리가 혼란스럽고 소회되지 않은채 남아 있었다.”고 지적한다. 한국인들은 이 3가지 종교를 수용하면서도 부조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런 점은 고대

헬라 로마사회와 같은 다종교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가나안의 종교 현상도 동일했다. 종교자제가 흉(凶)과 화(禍)를 피하고 길(吉)과 복(福)을 추구하는 현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물질적 부나 양재(饗災), 치병(治病) 등 기복적 성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그 종교가 갖는 교의나 이념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한국인에게도 나타난다고 지적한 것이다.

유교가 일상생활에 법과 질서를 소개했지만 도시화 혹은 근대산업주의의 복잡한 현실에 대한 윤리적 규범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65쪽), 한국의 진보를 방해하고 정체사회로 만든 이유가 유교 때문이라는 해석은 김경일의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보다 90년 앞선 성찰이다. 특히 샤머니즘에 대한 존스의 이해는 매우 포괄적이다. 무교에 성격과 구조에 대한 존스의 이해는 1992년 출간된 유동식의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의 선구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현실에 대한 존스의 이해는 함축적이면서도 분석적이고 따라서 그의 학구적 성격을 반영한다. 그는 21살의 나이로 내한한 최연소 선교사였으나 내한 이후 피 선교지 한국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흥미로운 부분은 제5장 '기독교와 한국토착종교의 접촉점'이다. 이 장은 존스의 한국종교 이해 혹은 타종교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데, 존스는 한국의 토착 혹은 기존종교는 기독교를 위한 준비로 간주할만한 접촉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피선교지의 토착종교가 복음전도의 전 이해 혹은 접촉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선교사(宣敎史)의 오랜 논쟁점이었다. 이미 1910년 에딘버러에서 모였던 국제선교대회(IMC)에서는 문화 인류학의 관점에서 타종교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명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하면서,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면서도 타종교에 '소량의 진리'(Modicum of Truth)가 있음을 인정했다. 1928년 예루살렘에서 모인 선교대회는 타종교에 대해 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

여주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타종교는 비록 기독교보다 열등하지만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으며, 기독교는 타종교의 부족을 보완, 완성시켜 준다는 소위 '성취설'(fulfilment theory)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대회는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관계를 진리와 거짓으로 보다는 우월과 열등의 관계로 이해하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촉구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이 후일 종교다원주의 대두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존 히크(John Hick)는 신적 실재(神的實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따라 각기 다른 종교로 발전해 왔다고 보고, 칸트의 '물자체'(noumenon)와 경험된 사물인 '현상'(phenomena)을 구별을 적용하여 신적 실재 자체는 똑같은 하나의 실재(noumenon)인데, 인간의 인식능력의 제한성 때문에 각각 다른 여러 현상, 곧 다른 종교로 표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인식의 제한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므로 모든 종교에는 공통적인 '궁극적인 것'(the Ultimate) 또는 '실재하는 것'(the Real)이 있다고 보고, 종교 간의 차이를 모순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호 보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래서 히크는 세계의 종교들이 서로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하나의 종교로 수렴되어 갈 것이라고 보아 성취설의 만개(晩開)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존스가 이런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종교의식, 혹은 종교사상에 존재하는 5가지 관념, 곧 하나님, 인간의 도덕적 책임, 예배, 기도, 영혼불멸 사상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인식할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견해는 기존 종교를 이방적인 것으로 보아 완전히 부정하던 입장과는 다른 것인데, 한국의 토착종교가 기독교를 위한 준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유사한 입장은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심심찮게 대두된 바 있다. 그 한 가지 경우가 뉴기니아의 사위족(Sawi) 선교사였던 돈 리차드슨(Don Richardson)인데, 그는 '화해케 하는 아이'(Peace Child),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Eternity in Their Heart) 등 여러 권의 저술을 남겼다. 후자의 책

에서 한국의 '하나님' 용어와 관념에서도 기독교의 여호와의 인식을 할 수 있는 내면의 뿌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점을 '구속적 유티의 원리'(the principle of redemptive analogy)라고 불렀다.

존스도 이와 같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토착종교에도 기독교와의 접촉점이 있다고 인식하여, 한국인의 신관념 예배 기도 습관에서 기독교 이해를 유추한다. 즉 한국의 토착종교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신앙을 주입시켜 왔다고 말한다(89쪽). 그러나 토착종교는 신적 존재를 인식하는 지점까지는 인도했으나 그 신에 대한 진리에는 무지했다는 것이다. 즉 토착종교가 기독교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나 유교는 한국인들에게 부분적으로 도덕규범을 인식하게 했는데 기독교는 여기서 진일보 하여 새로운 도덕적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97쪽), 토착종교에서 연원한 한국인의 예배 개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귀고 소통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존스는 한국의 토착종교의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착종교는 기독교로 인도될 수 있는 접촉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존스는, "이 다섯가지 접촉점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황금마차를 타고 그들에게 온 사자들을 인식하도록 준비시켰다."고 말한다(107쪽). 이렇게 볼 때 존스에게는 오늘 신학계가 말하는 소위 '성취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존스의 어학선생이자 동역자였고 한국학을 안내했던 최병헌(崔炳憲, 1858-1927)의 영향이 아닌지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실제로 종교에 대한 포용주의적 견해를 피력한 최초의 인물은 최병헌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점에서 그는 "한국 최초의 신학자" 혹은 "한국 최초의 비교종교학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병헌은 한국의 전통 사

상을 기반으로 기독교를 해석하여 "종교의 진리는 천상천하에 하나이요 고양금례에 돌이 없는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성취된 바가 그리스도 복음이며 기독교라고 이해하였다. 그의 '성산명경'(聖山明鏡)이나 '만종일원'(萬宗一源)은 이런 점을 보여준다. 이런 그의 입장은 정경옥, 윤성범, 유동식, 변선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감리교신학의 학맥으로 발전하였다.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편역자는 이 책을 '한국 최초의 통사'라고 불렀지만, 이 점은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191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초기 30년의 선교 역사를 기술했는데 이것을 통사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또 통사로 본다면 이보다 앞서 1908년에 출판된 언더우드(Underwood)의 '한국의 부름'이 통사적 기록으로 존스의 경우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존스의 기록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초기 한국교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헌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편역자의 훌륭한 번역과 원본에는 없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첨기한 정교한 각주는 이 책의 가치를 높여준다. 이 책을 통해서도 옥성득 박사는 훌륭한 학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문헌을 발굴하고 재편집하고 번역하여 우리 손에 들려 준 편역자에게 칭찬과 함께(cum laude) 감사를 드린다.



이상규 현재 고신대학교 교수이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거쳐 호주 빅토리아주 장로신학대학, 호주신학대학에서 수학하였다. 고신대학교 기독교 사상연구소장, 신학교장, 교무처장, 신학대학장, 부총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연구이사, 개혁신학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쓴 책으로는 「교회개혁사」, 「교회개혁과 부흥운동」,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교양으로 읽는 역사」 등이 있다.